

## DDA, 2007년 11월 농업협상 동향

신 유 선\*

팰코너 의장은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에서 11월 중순으로 예정되  
었던 모델리티 수정안 발표를 보류하였다. 그 이유는 일부 분야에서 협상에  
진전을 보임에 따라 논의가 연장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별품목에서는 흡  
족한 진전을 보이지 않았으며, 수정안에는 특별품목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다.

G-33은 특별품목범위와 관련하여 선진국의 민감품목 인정범위를 4~8%보  
다 커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지난 10월 25일 문서를 통하여 SSM 발동을 위  
한 가격과 물량 설정, 유효기간으로 12개월을 주장하였다. 11월 12일에는 주  
간 수출경쟁 분야 소그룹 논의와 더불어 11월 14일에는 민감품목 관련 논의  
가 이루어졌다.

### 1. 회의 평가

농업분야의 경우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진척이 이루어졌으나, 나머지  
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전체가 교착상태에 이르렀다<sup>1)</sup>. DDA 일정과 관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shinys@krei.re.kr 02-3299-4287

1) 중국은 WTO 신규가입국에게 나마관세감축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며 불만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숫자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 까닭은 대만이 이러한 신규가입국 입장을

련하여 11월 중순에 농업과 나마 분야 의장 수정안이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세부원칙(Modalities)<sup>2)</sup> 수정안 제출은 내년 1월 말 경으로 전망하고 있다. G-12회의도 11월 26일 주간에 개최될 예정이다.

나마의장은 나마협상 진전은 농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단독으로 협상을 진전시키고 어려우며, 각료회의에서 농업을 아우르는 상태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럼에도 당분간 비공식 협상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sup>3)</sup>.

“시장접근, 농업보조금, 나마” 등 세 분야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논의는 각 나라 협상대표들이 먼저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나 최종 결정은 각료급 협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의 수정안이 나오면 규범에 대한 텍스트도 12월 초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sup>4)</sup>.

---

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나마 수정안은 11월말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 2007. 11. 9, [www.insidetrade.com](http://www.insidetrade.com))

- 2) 세부원칙은 관세와 보조금을 감축하는 폭, 감축기간 등 구체수치를 담은 문서인데 세부원칙이 타결되면 각국별로 세부원칙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적은 문서 즉, 이행계획서(Schedule)를 WTO에 제출한다. 이행계획서가 세부원칙에 따라 잘 만들어 졌는지에 대해서 WTO 회원국들이 검증을 하고 검증이 끝나면 DDA 협상이 종결된다.
- 3) 나마협상은 선진국과 G-20, G-33, NAMA11, LDC, African Group, SVEs, Cotton4 countries 대결구도로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개발과 농업이 도하협상의 최종 핵심 사항임을 주장하고, 메르코슈르는 관세동맹을 맺은 국가에게 더 많은 탄력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새로운 요구를 하고 있다. 11월 15일 G-20 각료회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의 보조금을 의장이 밝힌 대로 130억 달러로 삭감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하였다.(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 2007. 11. 9, [www.insidetrade.com](http://www.insidetrade.com))
- 4) 또한 서비스와 무역원활화 분야의 텍스트가 나오고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10월 말 IMF, 세계은행 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미국을 방문한 라미의장은 미국 정·재계 인사들과 고루 만나서 DDA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브라질, 인도와 같은 농산물 수출국이 강경노선을 후퇴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셀소 아모링 브라질 외교부 장관은 11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개도국 그룹(G-20) 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DDA 협상을 위한 구체적인 결론 도출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아모링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브라질은 DDA 협상이 결실을 맺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오는 15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G-20 각료회의 결과가 이를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모링 장관은 특히 "브라질은 G-20 각료회의를 주도한 입장에서 DDA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개도국의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해 선진국의 농업보조금 삭감 및 농산물 수입관세 인하를 둘러싼 개도국 간의 입장 차이가 상당히 좁혀지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였다.

G-20 각료회의 개최는 11월 8~10일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열린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 기간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아모링 장관은 G-20 주요 국가 각료들과 전화접촉을 갖고 각료회의 개최 필요성 및 DDA 협상 진전을 위한 개도국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주력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한편 현지 언론은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이 이날 G-20 각료회의 개최와 관련해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와 전화통화를 가졌다고 보도해 G-20 국가 뿐 아니라 일부 선진국과도 사전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내비쳤다<sup>5)</sup>.

라미의장 자신의 페이퍼를 내놓고 찬반 여부를 협상국에 제시할 것이라는 소식도 있으나, 일부 외교관은 금년까지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은 상태로 보면 내년도 어려울 것이며, 라미의장의 페이퍼는 2009년 협상재개의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5) 연합뉴스, 브라질 현지 언론, 2007.11.13([www.insidetrade.com](http://www.insidetrade.com))

2007년 연말까지 각료회의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빠르면 2008년 2, 3월경에 개최가 할 수 있으나 다보스 소규모각료회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2. 시장접근 분야에 대한 논의

11월 16일 G-10 SOM 회의와 Room E<sup>6)</sup> 협의에서는 민감품목 소비량 통계 및 경사관세 등 시장접근 이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 2.1. 핵심요지

민감품목 소비량통계와 관련하여 국내통계도 사용가능(available)하고 입증가능(verification)하다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기준기간은 2002년부터 2004년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과정에서 품목범위와 관련하여 공통된 정의가 필요함을 제기한데 대해 표준화(standardize)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품목범위는 현존하는 소비량 통계의 범위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다.

---

#### 6) "Room E" 참가국과 가입된 그룹 현황

: 아르헨티나(케언즈 그룹,G-20), 호주(케언즈 그룹), 베닌(Cotton-4,아프리카 그룹, 최빈개도국(LDC),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지역 그룹(ACP), 브라질(케언즈 그룹,G-20), 중국(G-33, G-20), 콜롬비아(케언즈 그룹,열대작물 그룹), 코스타리카(케언즈 그룹,열대작물 그룹), 쿠바(G-33,소규모취약국가(SVE)), 도미니카공화국(G-33, 소규모취약국가(SVE)), 에콰도르(열대작물 그룹, 신규가입국), 이집트(G-20,아프리카그룹), EU, 인도(G-33,G-20), 인도네시아((G-33,G-20,케언즈 그룹), 자메이카(G-33,SVE,ACP), 일본(G-10), 케냐(G-33,아프리카,ACP), 한국(G-33,G-10),레소토(LDC,아프리카,ACP), 모리셔스(G-33,ACP,아프리카), 말레이시아(케언즈 그룹), 멕시코(G-20), 뉴질랜드(케언즈), 노르웨이(G-10), 파키스탄(케언즈 그룹,G-20,G-33), 파나마(G-33,열대작물), 파라과이(케언즈 그룹,G-20,열대작물), 필리핀(G-33,G-20,케언즈 그룹), 스위스(G-10), 태국(케언즈 그룹,G-20), 터키(G-33), 우간다(아프리카,LDC,ACP), 우루과이(케언즈 그룹,G-20), 미국, 베네수엘라(G-33,열대작물,G-20).

민감품목 소비량계산과 관련하여 주요 수출국들은 *partial designation*에 따라 TRQ증량 시 실질적인 시장접근 기회 확대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수입비중에 따른 소비량계산방식에 대해서는 다른 요인으로 인해 수입 제한 시 소비량이 적게 계산되는 문제에 대해 최소수준의 TRQ증량을 설정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TRQ *underfill mechanism*과 관련하여 발동기준인 [X]%에 현행 TRQ와 new TRQ를 모두 포괄할 것인지 new TRQ에만 적용할 것인지가 논의 중이다.

유럽연합(EU), G-10<sup>7)</sup> 등 수입국들은 민감품목의 *partial designation*이 타당함을 강조하며, 민감품목 소비량 산출방식 등 기술적인 문제는 논의를 통해 균형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G-12에서 민감품목 소비량통계 등과 관련하여 11월 26일 주간예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며, 동 기간은 세부원칙 수정안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기간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현재 민감품목<sup>8)</sup> 및 특별품목(SP)<sup>9)</sup>, 특별긴급관세(SSM)<sup>10)</sup>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며, 경사관세<sup>11)</sup>, 그린박스<sup>12)</sup>, 관세단순

- 
- 7) G-10은 한국,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 농산물순수입국 모임인데 농산물 관세를 지나치게 많이 감축하는데 반대하는 그룹이다.
  - 8) 민감품목은 관세감축을 덜 할 수 있다. 다만 대가로 수입쿼타(TRQ)를 주어야 한다. 민감품목의 개수는 국별로 전체 세 번(*tariff lines*)의 5% 내외에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감품목의 대우 즉, 관세를 얼마나 적게 감축하고 TRQ를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는 DDA 협상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 가운데 하나이다.
  - 9) 특별품목(*Special Products*)은 개도국들이 식량안보(*food security*), 생계유지(*livelihood security*), 농촌개발의 필요(*rural development needs*)를 감안하여 지정할 수 있는 품목이다. 특별품목 개수와 대우에 대해서는 이를 최대한 제한하려는 선진국, 농산물 수출개도국들과 이를 가능한 확대하려는 농산물 수입개도국간 입장차가 매우 크다.
  - 10) DDA 협상에서 개도국을 위한 특별긴급관세(SSM, *Special Safeguard Mechanism*)를 만들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협상중인데, 기존의 특별긴급관세(SSG,

화<sup>13)</sup>, 열대작물<sup>14)</sup>, TRQ관리방안 등 다른 이슈들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

의장은 양 그룹이 제시한 민감품목 관련 제안에 대해 기술적으로 명확하게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sup>15)</sup>, 논의를 통해 일반적인 결과는 도출할 수 있어도 세부적으로 명확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품목단위 지정방식은 민감품목의 개수가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되며, 이중

---

Special Safeguard)와 유사한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11)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는 농산물의 가공도가 높아질수록 관세가 높아지는 현상인데 농산물 가공업을 많이 보호하는 선진국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DDA 협상에서는 가공도가 높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원재료 농산물에 비해 관세를 좀 더 감축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 12) 일반서비스,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 자연재해 구호지원 등의 보조금은 감축 의무가 없는데, 이를 허용보조(Green Box)라고 한다.
- 13) 관세단순화(Tariff Simplification)는 종량세 등의 관세를 증가세와 같이 단순한 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증가상당치(Ad-valorem Equivalent)란 종량세를 증가세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증가세는 수입가격에 X%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고 종량세는 수입물량에 일정금액의 관세(예컨대 100원/kg)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DDA 농업협상에서는 관세를 높고 낮은 구간대로 나누어서 높은 관세를 보다 더 많이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종량세 등에 대한 증가상당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452개 농산물 세 번(tariff line)중에서 76개 세 번이 종량세이고, 이 또한 증가세와 병기되어 있어 종량세와 증가세 중 더 높은 수치를 적용하는 혼합세(mixed duty)이다.
- 14) DDA 협상에서 열대작물 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열대작물에 대한 관세를 많이 깎으려는 움직임이 있다. 관건은 열대작물의 정의와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인데 쉬운 해결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 15) 경사관세 판정을 위한 세율 결정문제 특히, 6단위 내 8단위 세 번의 세율이 다른 경우 6단위 세율을 계산하는 문제 등 기술적 문제가 있음이 제기되었다. 동 이슈와 관련하여 일부 국가에서 단순평균(simple average)을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기술적 문제로 AVEs의 사용여부도 논의 중이다.

부담(double payment)의 문제가 있다. partial 지정방식은 소비량 proxy 산출방식에 문제가 있다. 또한 소비량통계와 관련하여서는 모든 품목에 대해 통계가 이용가능하며, 통계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해결할지 등도 문제이다.

## 2.2. 향후 일정

의장은 회의 말미에 그동안의 Room E 협의를 통해 진전이 있었음을 평가하고, 향후 일정에 대한 참가국들의 입장을 문의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 인도, EU, 브라질, 호주, 쿠바, 캐나다는 현재의 협상 formation을 이어가기 위해 11월 26일 주간부터 적어도 2주간의 협의를 통해 그동안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이슈들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동 이슈들은 민감품목, SP/SSM, 경사관세, TRQ관리방안, M&S, 그린박스, 열대작물, 관세단순화, 관세상한 등으로 거론하였다.

의장은 상기 의견을 종합하여 11월 26일 주간부터 2주간 회의를 개최하겠으며, 의제는 금일 논의를 종료하지 못한 수출경쟁이슈 및 문서화 되지 않은 이슈('less well-textually developed')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참가국 의견에 따르면 내년 1월에도 계속 협상은 있는 것으로 보야 하며, 구체적인 계획은 상기 2주회기를 해본 후 결정할 것이라 언급하였다. 수정 문서를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제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에 회의를 해본 후 논의내용을 반영하여 제출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의장은 1주간 휴지기를 가진 후, 11월 26일 주간부터 2주간 SP/SSM, 민감품목 등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향후 일정을 제시하였다.

### 3. 수출경쟁 분야에 대한 논의

11월 16일 Room E 협의에서 민감품목과 더불어 식량원조<sup>16)</sup>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의장의 의견에 동의하였으며, 첫 번째 문장 ‘adequate level’에 대해 일부국가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식량 원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Food Aid Convention’ 수준을 benchmark로 사용하자고 제안하였다.

Para5 관련, 의장은 괄호안의 ‘needs assessment’ 규정이 중요하며, multilateral agencies에 의해 평가받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의장은 9항과 관련 needs를 평가, 현금 지급이 이루어져 현금이 food insecure를 해결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동 현금원조 시 이에 대한 discipline이 필요하겠느냐고 의문을 던지고, multilateral agencies가 식량 부족(food deficit)등 기본적인 문제(fundamental problems)를 판명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식량원조와 관련하여 의장이 제시한 식량원조 분야(Annex F) working document를 기초로 Para별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식량원조 요청주체로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 민간자선단체(NGO), 국제 적십자 기구 등이 포함되는 것에는 이의제기가 없었으나, NGO의 신뢰성 및 공정성에 대한 규율에 대해 논의가 되어 향후 이에 대한 규율 설정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

16)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재고식량을 덤핑으로 해외시장에 파는 경우가 많다. DDA 협상에서는 이러한 덤핑행위도 엄격하게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협상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상으로 원조해야 한다는 것이 협상의 기본 방향이다.

긴급상황에서의 현금화 금지는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였으나, 비긴급상황에서의 현금화에 대해서는 현금의 용도가 식량원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 등의 문제로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자는 내용이 논의된 반면, 대부분의 최빈개도국(LDC)<sup>17)</sup>국가들은 운송비용 문제 등의 이유로 현금화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 4. 향후 일정

11월 26일 주간부터 2주간 SP/SSM, 민감품목 등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것이며, 팔코너 의장의 세부원칙(Modalities) 수정안 제출은 내년 1월 말경 개정되어 발표될 예정이다.

- 농업과 비농업 부문 세부원칙(Modalities) 수정안 제출 : 2008년 1월 말경
- 농업위원회 : 2007년 11월 21~22, 2008년 3월 18~19, 6월 24~25, 9월 17~18, 11월 26~27
- 일반이사회 : 2007년 12월 19~20

---

17) 최빈개도국(LDC, Least Developed Countries)은 UN이 지정한 가장 가난한 나라들로 2007년 7월 현재 50개국이다. DDA 협상에서 LDC 국가들에게 우대를 주기로 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LDC 국가들이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수량을 제한하지 말고 관세도 부과하지 말자는 것이다.

표 1 WTO/DDA 농업협상 주요국 제안 내용

구 분	세부원칙초안	EU	미국	G-20	G-10	
시장접근	구간경계	(선진국) 20-50-75 (개도국) 30-80-130	(선진국) 30-60-90 (개도국) 30-80-130	20-40-60	(선진국) 20-50-75 (개도국) 30-80-130	(선진국) 20-50-70 (개도국) 30-70-100
	관세감축률	(선진국) [52][60][65]-[73] (개도국) [48][55][62]-[66]	(선진국) 35-34-50-60 *최하위 20~45% (개도국) 25-30-35-40 *최하위 10~40%	60-70-80-90	(선진국) 45-55-65-75  (개도국) 25-30-35-40	(예시1) 27-31-37-45  (개도국) 32±7-36±8-42± 9-50±10
	관세상한	직접적 언급 없음. (단, 감축후 관세가 100%p 이상인 품목비중이 5% 이상일 경우 TRQ 추가 증량)	(선진국) 100% (개도국) 150%	(선진국) 75% (개도국) X%	(선진국) 100% (개도국) 150%	반대
	민감품목개수	4~6%	8% (관세감축 최상위 구간 신축성 확보 시 4% 가능)	1%	(선진국) 1% (개도국) 1.5%	일정 비율 (10~15%)
	특별품목	(향후 논의방향만 제시)	제한적 인정	5개 세번	특별품목 지지	특별품목 지지
국내보조	AMS	EU 70% 감축 미국, 일본 60% 기타 45%	EU, 일본 70% 감축 미국 60% 기타 50%	EU, 일본 83% 감축 미국 60% 기타 37%	EU, 일본 80% 감축 미국 70% 기타 60%	EU 70% 감축 일·미 60% 기타 40%
	무역왜곡보조총액	EU 75~85% 감축 미·일 66~73% 기타 50~60%	1구간 70% 감축 2구간 60% 3구간 50%	EU 75% 감축 미·일 53% 기타 31%	EU 80% 감축 일·미 75% 기타 70%	EU 75% 감축 일·미 65% 기타 45%
	de-minimis	50~60% 감축 (개도국은 2/3)	선진국 80% 감축	50% 감축	AMS없는 개도국 감축 면제	-
	Blue Box	농업총생산액의 2.5%(상한) (개도국은 5%)	신규 Blue box 제한규정 필요	농업총생산액의 2.5%(상한)	Blue Box 제한	신규 블루박스 추가논의 필요
	Green Box	개도국 관련규정 완화	현행 규정 유지	현행 규정 유지	개도국 관련규정 완화	현행 규정 유지

표 2 DDA 농업협상 주요국 및 주요그룹 현황

구분	대상국가	기본입장	비고
G-6	미국, EC, 브라질, 인도(이상 G-4 국가), 일본, 호주		농업협상주요국 그룹
G-10	한국,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대만,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모리셔스	농산물 수입국 입장 대변 과세상한 설정 반대 관세감축 신축성 주장	수입국 그룹
케언즈 그룹	캐나다,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파키스탄, 페루, 우루과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남아공,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농산물 수출국 입장 대변	수출국 그룹
G-20	아르헨티나, 브라질, 볼리비아, 중국, 칠레, 과테말라, 인도, 멕시코, 파라과이, 필리핀, 남아공, 태국, 쿠바,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이집트,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탄자니아, 우루과이, 짐바브웨	개도국 입장 대변 선진국 국내보조 대폭 감축, 수출보조 철폐 개도국 우대 강화	강경 개도국그룹
G-33	한국, 중국, 도미니카,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자메이카, 케냐, 마다가스칼, hflutm, 몽골,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니카라과, 파키스탄, 파나마, 페루, 필리핀, 세네갈, 스리랑카, 터키, 우간다, 베네수엘라 등	개도국 입장 반영 특별품목(SP) 및 특별 긴급수입제한제도(SSM)에 중점	특별품목 그룹
G-90	ACP(African Carribean and Pacific Group), LDC(Least Developed Countries) 국가들로 구성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일부 국가 포함	-
ACP 그룹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지역 79개 국가	개도국 특혜관세 혜택 유지 주장	-

## 참고자료

농림부, 한 번에 끝내는 알기 쉬운 DDA협상용어 50선, 2007.

농림부, 해외농업 사이트(www.insidetrade.com)

Washington Trade Daily Vol.16. no 231 발췌정리

Official WTO documents, Export Credits, Export Credit Guarantees or Insurance Programmes, Working Document No1, circulated by Ambr. Falconer, WTO Ag. Negotiations Chair, 7 November 2007(www.agradepolicy.org)